



노먼 브라운의 사상

The Historical Thought Of Norman Brown

저자 (Authors)	조한욱 Cho, Hanook
출처 (Source)	중앙사론 42 , 2015.12, 353–369 (17 pages) CHUNG-ANG SARON : Journal of Chung-Ang Historical Studies 42 , 2015.12, 353–369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Institute for Historic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98845
APA Style	조한욱 (2015). 노먼 브라운의 사상. <i>중앙사론</i> , 42, 353–369.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22.46.157.*** 2018/05/08 09:1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노먼 브라운의 사상*

조 한 육**

목차

- I. 서론
- II. 노먼 브라운의 생애
- III. 『죽음에 맞선 삶』
- IV. 결론

I. 서론

노먼 브라운은 미국의 학자이자 저술가이다. 본디 고전학으로 출발했지만 그는 역사학, 심리학, 문학비평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기쳤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서유럽과 미국을 강타했던 기존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 운동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사실로도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는 고전학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접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잠바티스타 비코와 20세기의 전위적인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를 연결시키면서 문체 실험을 하기도 했다. 2002년에 사망한 그를 추도하는 신문 기사가 밝혔듯,¹⁾ 그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로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4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트와 예수까지도 엮어서 방대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그것은 당대의 혼란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계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는커녕 기본적인 소개조차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색적으로 보일 만큼 파격적이면서도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그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조명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런 정황을 감안하여 먼저 노먼 브라운의 생애를 개괄한 뒤, 그에게 처음으로 명성을 가져다주었고 지금도 그의 대표 저서로 꼽히는 『죽음에 맞선 삶: 역사의 정신분석학적 의미』²⁾의 내용에 대해 심도 깊게 고찰하고자 한다. 노먼 브라운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년으로 갈수록 그가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보게 된 잠바티스타 비코에 대한 저서 『마감 시간』³⁾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서 언급한 책의 주제와는 동떨어진 또 다른 영역으로의 진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마감 시간』에서 펼쳐지는 잠바티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과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의 경이로운 결합에 대해서는 후속의 연구를 기약한다.

II. 노먼 브라운의 생애

노먼 브라운은 1913년 9월 25일 멕시코의 엘오로에서 태어났다. 그 지명

-
- 1) Douglas Martin, "Norman Brown Dies: Playful Philosopher Was 89", *New York Times*, October 4, 2002.
 - 2) Norman Brown, *Life against Death: The Psychoanalytical Meaning of History*, Wesleyan University Press, 1959. 이 책은 1970년에 웨슬리언 대학교 출판부에서 문고본으로 간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1977년에 나온 이 책의 7쇄본을 사용했다. 이후 LD로 약함.
 - 3) Norman Brown, *Closing Time*, New York: Random House, 1973.

이 ‘금’을 뜻하듯 엘오로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금광과 은광으로 꽤 번창하던 곳이었다. 노먼 브라운의 아버지는 아일랜드 계 영국 이주민으로 광산의 기사였고, 어머니는 쿠바 출신의 백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교육을 받은 곳은 영국과 미국이었다. 그는 브리스톨의 클리프턴 칼리지를 다닌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옥스퍼드에서 지도교수는 아이자이아 벌린이었다. 철학자 스튜어트 햄프셔와의 우정은 옥스퍼드의 학창 시절로부터 비롯된다. 이후 “동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엘리자베스 포터를 만나 1938년에 결혼해 죽을 때까지 60년을 해로했고, 박사 학위는 1941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고전학으로 받았다. 박사 학위의 주제는 훗날 『도둑 헤르메스: 신화의 진화』⁴⁾라는 저서로 결실을 맺었다. 이 책에서 브라운은 상고 시대 그리스의 신화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시대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메로스의 시대부터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서 헤르메스라는 신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경제적 기술과 사회 조직의 발전은 물론 사고 양태의 변화와도 연결시켰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그는 네브래스카의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고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학자와 교육자로서 그의 경력을 중단시켰지만, 다른 면에서 그 전쟁은 그의 학문 세계의 확장에 기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프랑스 문화의 전문가 자격으로 전략 정보청(Office of Strategic Services)에서 정보 분석가로 근무했는데, 이 당시 상관이 칼 쇼스케였고, 동료에는 허버트 마르쿠제와 독일의 좌파 이론가이자 행동가 프란츠 노이만이 있었다. 마르쿠제는 브라운에게 프로이트를 읽으라고 권

4) Norman Brown, *Hermes the Thief: The Evolution of a Myth*,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7.

함으로써 브라운의 생애에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⁵⁾ 사실상 브라운의 『죽음에 맞선 삶』은 마르쿠제가 『에로스와 문명: 프로이트에 대한 철학적 탐구』⁶⁾에서 수행했던 작업을 이론적으로 완결시킨 것이라는 평을 반기도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술할 것이지만, 브라운 스스로도 자신의 책이 “정신분석학을 쇄신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생각을 쇄신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시도의 환영받을 만한 증거의 하나가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임을 명확하게 했다.”⁷⁾

전쟁이 끝난 뒤 브라운은 학계로 복귀했다. 그는 코네티컷의 웨슬리언 대학교 고전학과의 학과장을 맡다가 로체스터 대학교로 옮겨 고전학과 비교문학을 가르쳤다. 웨슬리언 대학교에 있는 동안 쇼스케가 사학과에 부임하게 되어 다시 만난 그 둘은 학문 영역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분을 이어 나갔다. 브라운은 쇼스케와 함께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한 강의를 공동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전후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존 케이지와도 친구가 되었고, 그것 역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⁸⁾

브라운은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후보 헨리 월리스를 지지했다. 그러나 선거의 패배 이후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 1950년대 초에 이르러 그는 정치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⁹⁾ 프로이트에 대한 연구에 더욱 몰두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5) Eli Zaretzky, "Norman Brown 1913–2002," *Radical Philosophy* 118 (March/April, 2003), p. 50.

6) Herbert 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 New York: The Beacon Press, 1955.

7) LD, p. xii.

8) 존 케이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ohn Cage, *Empty Words: Writings '73-'78*,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1. 노먼 브라운은 『마감 시간』의 서언에서 존 케이지에 대해 언급한다.

『죽음에 맞선 삶』이었다. 문학 비평의 거장 라이오넬 트릴링이 “내가 아는 한 프로이트에 대한 최고의 해석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 책은 국제적으로 학계의 찬사를 받았고, 브라운은 일약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 책은 『런던 옵저버』가 선정한 그 해 최고의 논픽션이 되었다. 1970년에 행한 인터뷰에서 브라운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다. “『죽음에 맞선 삶』을 쓰기 전까지 나는 완벽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의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자 잠이 힘을 잃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세상의 잠을 혼란시키려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그가 성공했다.”¹⁰⁾

게다가 그 책은 다른 방식으로 브라운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여러 신문과 잡지의 기사에서 그를 뉴 래프트의 기수로 떠올리며 히피들이 즐겨하는 마약 LSD와 성해방에 연결시켰다. 그러자 1960년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학생 운동의 행동가들 사이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며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히피와는 달리 단정한 짧은 머리에다가 마약은 결코 입에 대지도 않을뿐더러, 애견과 함께 산책하며 명상하는 세심한 그리스 고전의 전문가를 만났을 뿐이었다. 노먼 브라운 자신도 그러한 유명세에 당황하며 “나는 인간의 잠재력을 위한 그러한 운동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¹¹⁾ 본질적으로 자신을 혁명가나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학자이자 교육자와 동일시했던 그는 그 유명세를 회피하려 했다. 『죽음에 맞선 삶』의 성공에 힘입어 나온 후속편 『사랑의 육체』¹²⁾가 출간된 뒤 그는 이렇게 술회했다. “나는 『죽음에 맞선 삶』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취소시켜야 할 일종

9) Douglas Martin, op. cit.

10) <http://news.ussc.edu/2002/10/211.html>. 2015년 11월 30일에 참고함.

11) Douglas Martin, op. cit. 이 언급은 1976년 잡지 *Human Behavior*와 행한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Norman Brown, *Love's Body*, New York: Random House, 1966.

의 의무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얻은 추종자들을 풀어놓아주기 원했다.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방황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죽음에 맞선 삶』의 좌표를 지우기 위해 그것에 어뢰 공격을 해야 할 실존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랑의 육체』를 집필했다.”¹³⁾ 사실 노먼 브라운은 친구와 동료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노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친절한 교육자였다. 동료와 학생들과 산책하기를 즐겼던 그는 박식하며 그의 강의는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때로는 시적이었다고 그의 제자들은 기억한다.¹⁴⁾

노먼 브라운은 1968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분교로 적을 옮겼다. “의식의 역사”라는 특이한 과정이 있는 그 대학교 사학과에는 역사학의 언어적 전환에 불을 붙였던 헤이든 화이트가 재직하고 있었고, 그 둘은 친구가 되었다. 브라운은 1981년 은퇴할 때까지 산타크루즈에서 시, 신화, 정신분석학,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 이슬람교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개설했다. 1991년에 간행된 『묵시록, 그리고/또는 변신』¹⁵⁾은 30여년 동안 써온 글들을 모은 책이다. 2009년에는 오랜 기간 산타크루즈의 동료였던 철학 교수 제롬 노이가 브라운이 1980년대에 썼던 이슬람에 관한 글들을 모아 『이슬람의 도전: 예언자의 전통』이라는 책을 간행했다. 이 책에서 그는 “무함마드가 예수를 단테와 블레이크에 연결시키는 다리”라는 주장을 펼쳤다.¹⁶⁾

-
- 13) Norman Brown, *Voices and Visions*, Sam Keen ed., New York: Harper & Row, 1974, p. 33.
 - 14) Kristin Ross, "Closing Time," *Radical Philosophy* 118 (March/April, 2003), pp. 52–54.
 - 15) Norman Brown, *Apocalypse and/or Metamorphosi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16) Norman Brown, *The Challenge of Islam: The Prophetic Tradition*, ed. by Jerome Neu, New Pacific Press, 2009.

브라운은 대학교의 졸업식의 연설로도 졸업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75년 산타크루즈의 연사로 나선 그는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을 당혹케 했다. 포르투갈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살라자르의 독재를 무너뜨린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사회에 동화되려는 졸업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¹⁷⁾ 그러나 그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어디에서든 했다. 산책을 하면서 마주친 버섯에서 시를 이해하기 위한 예기치 않은 영감을 얻기도 했던 것이다. 1984년의 졸업식에서는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영혼을 갖는다거나 구제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영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창조적이며 스스로를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적 상상력입니다.”¹⁸⁾ 이 연설문의 내용이 곧바로 노먼 브라운의 삶이었다.

노먼 브라운은 2002년 10월 2일 산타크루즈의 자택에서 89세의 나이로 일기를 마감했다.

III. 『죽음에 맞선 삶』

노먼 브라운은 『죽음에 맞선 삶』의 서문에서 자신이 그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1953년에 갑자기 프로이트에게 심취하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정치적인 동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 작업이란 인간의 신분을 구원하는 것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7) Kristin Ross, "Closing Time," *Radical Philosophy* 118 (March/April, 2003), pp. 53.

18) <http://news.ussc.edu/2002/10/211.html>. 2015년 11월 30일에 참고함.

양심을 개신교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세대에 속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자유주의자들의 사고와 행동에 지침이 되었던 정치적 범주들이 쇠락하는 것을 겪으며 살아왔다. 기질적으로 악과 냉소주의와 좌절의 정치학을 포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은 정치의 본질과 인간 본성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고전적 가설들을 재검토 해야만 했다.”¹⁹⁾ 사실상 브라운의 이 언급은 마르크스 이후의 세계에 대한 통로를 프로이트에게서 찾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찾으려는 누구에게도 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왜 그 대안이 프로이트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 명료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 세계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받아들이던 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940년대에 대체로 서구의 지식인들은 정신분석학 자체가 보수적인 학문이며 프로이트는 보수주의자라고 받아들였다. 좌파인 에리히 프롬은 『자유에 대한 두려움』에서 정신분석학의 여러 측면이 정치적 반동의 명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결을 내렸고, 거기에 우파의 지식인들도 동조했다. 프로이트는 불가피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어쨌든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한 인물로 그려졌던 것이다.²⁰⁾

브라운이 의존한 정신분석학의 이론가들은 이들과 달랐다. 그는 정신분석학과 인류학과 역사학의 종합을 도모했으며, 이런 점에서 이미 같은 작업을 실천에 옮겼던 형가리의 분석가 게자 로하임의 업적이 “단지 프로이트에게만 뒤지는 중요성을 갖는 선구적인 작업”이었다고 평가했다.²¹⁾ 또한 가장 급진적인 정신분석가라는 평판을 받는 오스트리아의 빌헬름 라이

19) LD, p. ix.

20) 다음을 참고할 것. Philip Reiff, *Freud: The Mind of the Moralis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21) LD, p. xi.

히에 대해서도 “억압을 폐지시킬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 놓은 불운의 모험가”²²⁾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가려는 길의 선구자였음을 인정했다.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 역시 “정신분석학을 쇄신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생각을 쇄신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선행하는 업적이었음을 받아들인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었다.²³⁾

브라운은 그 선구자들의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마르쿠제는 물론 『프로이트와 우리 문화의 위기』²⁴⁾라는 저서를 통해 프로이트의 사상이 보수주의적이라는 당대의 해석에 도전했던 라이오넬 트릴링과 합세하여 프로이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여는 데에도 기여했다.

사실 프로이트 자신도 말년으로 가면서 정신분석의 이론이 사회 현상의 설명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으며, 79세에 이르러 『자서전』에 덧붙인 후기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 관심사는 “자연과학과 의학과 심리요법을 통과한 일생에 걸친 우회로 끝에 문화적 문제로 복귀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오래 전부터, 즉 내가 사고를 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나를 매료시켰던 것”²⁵⁾이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 및 『모세와 일신교』를 통해 인류 초기의 가족과 사회와 종교의 발생에 대해 본질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기초하고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던 것은 물론, 『환상의 미래』와 『문명과 그 불만』에서는 미래를 위한 전망을 내비쳤다. 바꾸어 말하면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이 사변적인 역사철학으로

22) LD, p. xii.

23) 주 8)을 참고할 것.

24) Lionel Trilling, *Freud and the Crisis of Our Culture*, New York: The Beacon Press, 1955.

25) Sigmund Freud, *Autobiography*, tr. James Stratchey, New York: Norton, 1955, p. 148.

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해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⁶⁾

프로이트 스스로의 그러한 토로와 확신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의 정통을 자처하는 비판자들은 그 저작들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반동적이라고 매도했다. 마르쿠제와 트릴링을 따라 브라운도 프로이트 말년의 저작이 갖는 진정성을 복구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 작업의 요체란 문명을 이루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저작들이 프로이트 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으며, 프로이트의 위대성은 “인류의 보편적인 신경증”²⁷⁾에 대한 형이상학적 분석에 있다는 것이었다. 현대인은 성적인 억압과 제어할 수 없는 공격성의 부담으로 병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현대인의 불행이라는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비억압적인 문명을 보장하는 정신분석학의 비판적 경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해결책을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가설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면서 가장 비판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성 역할의 도착’과 ‘죽음에의 본능’이 실재한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브라운이 마르쿠제와 달라지는 곳은 그 스스로가 신비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이며, 서양의 종교 사상에서 혁명적 주제에 의존했다는 것인데, 특히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야콥 브레메와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육체 신비주의에 기대했다는 것이었다.²⁸⁾

이제 『죽음에 맞선 삶』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 가 보자. 1950년대가 저물 무렵 어떻게 프로이트가 ‘쇠락’했다 하여도 여전

26) 이 논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Bruce Mazlish, *The Riddle of History: The Great Speculators from Vico to Freud*, New York: Harper & Row, 1966. 특히 pp. 393–427. 조한우, “역사학과 프로이트”, 『인문학 연구』, 제5집, 한림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1998, p. 116.

27) LD. p. xi.

28) LD, p. 32. 다음을 참고할 것. Paul Robinson, *The Freudian Left: Wilhelm Reich, Geza Roheim, Herbert Marcuse*,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허 힘을 발하던 마르크스주의의 계획에 대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죽음에 맞선 삶』이 제기한 첫 번째의 문제점이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물질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풍요’, ‘인공 지능’, ‘우주의 정복’과 같은 말들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이제 생존 경쟁의 이론은 더 이상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예측했듯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다”²⁹⁾고 해봐야 사회 전체의 신경쇠약이나 창조적 질병을 일으킬 뿐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종말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1930년에 쓴 “우리의 손주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여가와 풍요의 시대를 두려움이 없이 기대할 수 있는 국가나 국민은 어느 곳에도 없다.”³⁰⁾

마르크시즘에는 그 재검토를 위한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에 프로이트는 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의 진보에 대한 환상을 반박하는 보수주의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니, 마르크스의 후계자로 프로이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훗날 신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중요한 저술가가 될 노먼 포드호리츠의 증언이 필요하다. 사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 영문과에서 트릴링의 제자였는데, 트릴링에게 노먼 브라운의 『죽음에 맞선 삶』을 읽어보라고 권했던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가능성은 내재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적이라고 보는 프로이트의 해석에 브라운이 강력하게 도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카렌 호르나이나 에리히 프롬과 같은 초기의 비판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 스스로가 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특정한 사회에만 유효하다고 논하지 않았다. 그러한 전략의 값싼 상대주의를 경멸

29) LD, p. 35.

30) LD, p. 36에서 제인용.

하며 브라운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비관적 전망이 반드시 그의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아님을 증명하려 했다. 브라운은 이것이 모든 본질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다.”³¹⁾ 프로이트와 같은 거인을 넘어서는 길은 관통하는 길 뿐이었다.³²⁾

프로이트를 관통하기 위해 브라운은 『죽음에 맞선 삶』에서 프로이트를 읽으며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스스로를 억압하는 동물이 있을 수 있는가?’ 브라운은 프로이트의 텍스트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브라운의 독해에 따르면 프로이트에게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요인이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며, 그것은 훗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독립적인 개체로 자라난다는 것은 이러한 원초적 두려움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다. 불안감에 몰린 에고는 “스스로를 창조한다는 계획”³³⁾에 얹매인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독립’에 불과하다. 에고의 성적인 역사가 그러한 비현실성의 증거이다. 대상을 향한 리비도를 자기를 향한 리비도로 변형시키는 성의 제거야말로 에고를 쌓아가는 일차적인 방법이다.

유아가 심리적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브라운은 프로이트와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에고로 성장하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발달 과정의 목표로 상정하는 자율과 생식기 성욕과 승화는 브라운에게 있어서 모두가 억압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브라운은 정신분석학이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조장했다고 비판한다.³⁴⁾ 브라운이 보기에 정

31) Norman Podhoretz, *Ex-Friends: Falling out with Allen Ginsberg, Lionel and Diana Trilling, Lillian Helman, Hannah Arendt, and Norman Mailer*,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p. 199.

32) Eli Zaretzky, "Norman Brown 1913–2002," *Radical Philosophy* 118 (March/April, 2003), p. 50.

33) LD, p. 123.

34) LD, p. 54.

신분석학이 진정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초기 유아기의 ‘자웅동체의 도착’(polymorphous perversity)의 상태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은 예술과 놀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아를 초월하는 상태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전술하였던 기독교 신비주의자 윌리엄 블레이크와 야콥 뵈메와 같은 사람들이 도달한 경지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에고의 특성인 자기 보존의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운에 따르면 생식기 성욕이란 ‘아직 죽을 만큼 강하지 못한 에고의 형성’³⁵⁾을 뜻할 뿐이다. 브라운에게는 억압이 “인류의 보편적 신경증”³⁶⁾으로서 모든 개인이 겪어야만 하는 질병이었다. 다시 한번 포드호리츠로부터의 인용이 필요해 보인다. “『죽음에 맞선 삶』의 탁월성이란 그 책의 분석이 ‘자웅동체의 도착’, 즉 놀이와 완벽한 본능과 성적 자유의 삶이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망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는데 있다.”³⁷⁾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을 문명의 해석이나 비판에 적용시켰듯 노먼 브라운 역시 자신의 이러한 이론적 틀을 역사의 해석에 적용시킨다. “역사에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역사가에게 요청되는 것은 한 가지 질문 때문이다. 왜 인간이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를 갖고 있는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소유물을 갖고 있고 문화라 부르는 생물학을 넘어서는 장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만일 역사와 시간 속의 변화가 인간 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따라서 인간의 특성이라면 자신의 문화를 바꾸어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는 욕망을

35) LD, p. 28, *passim*.

36) LD, p. xi.

37) Norman Podhoretz, *Ex-Friends: Falling out with Allen Ginsberg, Lionel and Diana Trilling, Lillian Helman, Hannah Arendt, and Norman Mailer*,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p. 199.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과정이란 지금의 자신과 다른 무엇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유지된다.”³⁸⁾

브라운에게 역사란 집합적 개인으로서 트라우마와 억압과 그의 해소라는 과정을 마찬가지로 겪는다. 역사 역시 신경증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역사 현상은 종교개혁과 자본주의의 탄생이었다. 브라운은 자본주의의 탄생이 그 핵심에 있어서 개인의 진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단계와 유사한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본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어린아이가 항문기에서 남근기로 옮겨가듯, 브라운의 이론에서는 중세에서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항문기는 억압되었다가 재산으로 변형되어 새로 태어났다. 브라운은 자본주의가 근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조직된 항문기였다고 논한다. 근대 초 사회의 남근기에 그 사회의 추동력은 말 그대로 배변과 다름없었다. 개신교도들이 그것을 최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브라운의 견해이다.

특히 마르틴 루터는 상업이 갖는 악마적인 성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상업은 악마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며 소유물과 근검을 강조함으로써 배변에 집착하는 것과 유사성을 보인다. 초기의 개신교도들이 돈의 배변과도 같은 지배를 인정했다. 자본주의는 악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실제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황의 궁극적인 죄악은 물질적 세계, 즉 상업, 곧 악마에 적응하려 하였다는 것이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세계를 “영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³⁹⁾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루터의 신학에 의하면 결단코 분리되어 있어야 마땅한 육체와 영혼의 두 세계를 혼동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신교는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의 정신’을 설명하면서 제시하듯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조건이 아니라 그 발전의 과

38) LD, p. 15.

39) LD, p. 228.

정에 있어서 강력한 제약이었다.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브라운은 죽음을 삶에의 입구로 보았다. 브라운에 따르면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를 연결시키면서 직업을 강조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행위가 구원에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맡겼듯 개신교도는 직업에 자신을 맡겼다.”⁴⁰⁾ 그 의미란 자유로이 억압을 받지 않고 현세와 결합을 하는 것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이원론을 초월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죽음에 맞선 삶』을 허버트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과 비교하는 일은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에로스와 문명』이 4년 전에 출간되었기에 브라운이 그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있다. 마르쿠제는 어머니와의 이별, 본능과의 투쟁, 죽음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억압을 소외된 노동과 계급 사회가 부과하는 억압인 잉여 억압과 구분했다. 반면 브라운은 억압받지 않은 인간성이 만들어낼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예언자의 어조로 설명했다. 브라운의 설명보다 마르쿠제의 이론에 현실성이 더 크게 배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브라운의 설명에서는 기독교의 기본적 골격이 나타나고 그것은 이후 『사랑의 육체』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에로스와 문명』은 훨씬 더 세속적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점에서 브라운은 마르쿠제보다 그들 공통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프로이트에 더 가까웠다. 마르쿠제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은 개인 외부의 사회적 요구에 기인하는 반면 브라운에게 그것은 의존과 이별이라는 고통스러운 사실에 기인하는 인간 내부의 ‘마음이 만든 수갑’이었다.

40) LD, p. 222.

IV. 결론

『죽음에 맞선 삶』은 『에로스와 문명』보다 프로이트의 정신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고 해서 브라운이 프로이트를 완전히 따른 것도 아니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삶에서 억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억압이 없는 유토피아의 건설을 꿈꿨고, 브라운은 억압받지 않은 인간성이 만들어낼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예언자의 어조로 설명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재세례파와 디거파와 같은 극단적 분파가 현세에서의 구원을 추구했듯, 뉴 레프트는 억압이 불가피하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거부했다. 『죽음에 맞선 삶』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지평선을 그려준 것과 같았다. 이 책의 주장은 뉴 레프트의 구호를 대변했다. 정치 세계는 내재적으로 미쳐있다는 믿음, 핵가족의 거부, 차별과 경계를 초월하려는 욕망,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희망, 진정성을 추구하며 승화나 업적의 윤리를 거부하는 것, 절대적인 자유와 놀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 책에서 찾았다. 그것이 노먼 브라운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유명세를 타게 된 연유였다.

유토피아의 꿈을 잊은 오늘날의 세계에 우리가 노먼 브라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한 사회적 변혁의 시기에 생성된 꿈은 사라진 듯 보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오늘날에도 여성 운동이나 비핵화 운동이나 세계화 반대라는 이름으로 그 꿈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노먼 브라운, 『죽음에 맞선 삶』, 프로이트, 카를 마르크스, 허버트 마르쿠체, 정신분석학, 억압, 마르틴 루터, 막스 베버, 자본주의, 뉴 레프트

(논문투고 : 2015.11.30 / 논문심사완료 : 2015.12.11 / 논문게재 확정일 : 2015.12.14)

The Historical Thought Of Norman Brown

Cho, Hanook

This article tries to shed some light on the life of Norman Brown, an American scholar, writer and social philosopher, and his major work *Life Against Death: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History*. Originally he was a classical scholar, but in later life delved into the works of Sigmund Freud, producing *Life Against Death*. In it he showed the ways in which psychoanalysis could be used to elucidate the course of human history. What is more, he tried to explain that there could be a world where there would be no repression. This is why the revolution-oriented youth groups known collectively as the New Left gathered around him, despite his avoidance of the fame. *Life Against Death* is certainly inspired by Freud, but at some point Norman Brown goes further than Freud, to make his point. He made use of the theories of Marx, Freud, Herbert Marcuse, Max Weber, and so on, but the outcome is his own original analysis of capitalism.

Key Words : Norman Brown, Life Against Death, Freud, Karl Marx, Herbert Marcuse, psychoanalysis, repression, Martin Luther, Max Weber, capitalism, new left